



최 근 '사찰경영'이라는 말이 관심을 모을 만큼 불교와 경영, 경제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1980년대 등장한 불교경제학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시도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기업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성과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 CEO의 경영철학이 기업성공의 핵심요소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에 불교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불교경영을 구현하고 있는 김순경(주)새한텐스텐 회장을 8월 28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만나 불교경영과 불지CEO의 역할, 사회적 회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익금 10% 사회로 회향

김순경 (주)새한텐스텐·새한마이크로텍 회장

▷'육안 밝혀 심안 뜨게 하리'

국내 처음으로 텀스텐을 소재로 한 필라멘트를 개발한 (주)새한텐스텐. 텀스텐을 이용한 광원은 기존의 필라멘트보다 적은 전기로 더 밝고 강력한 빛을 선사했다. "육안(肉眼)을 밝혀 심안(心眼)을 뜨게 하겠다"는 김순경(78·법명 돈오) 새한텐스텐 회장의 원력이 결실을 맺은 것. 이는 곧 창업정신이기도 하다.

김순경 회장은 젊은 날 개신교의 절대자에게 빠져 지낸 적이 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그에게 절대자의 섭리는 길을 열어주지 못했다. 해답을 준 것은 철학적 근거가 명료한 불교였다. 김회장은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인가를 받아 수락산 내원암에서 법사로 활동했다.

"불교가 너무 좋아서 법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부처님법을 말했지만,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지는 못했어요. 어느 순간 이것은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재가불자인 나는 육안이라도 더욱 밝혀 심안을 뜨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겠다고 시작한 회사가 지금의 새한텐스텐입니다."

김회장의 경영은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형이상학적 요소를 가미한 불교경영이라 일컬을만하다.

'돈에 연연하지 않고 사업한다'는 그의 경영철학에서도 읽을 수 있듯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경영과도 차이가 난다.

"저라고 왜 돈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돈 욕심을 버리고 나니 어떤 사업이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하도록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경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익금 직원과 사회에 회향

김회장은 불교에서 얻은 경영철학을 이익금 환원으로 실천했다. 국내에서 성과급제도가 소개되기 전이었던 1977년, 이미 새한텐스텐(당시 새한공업사)에서는 영업을 이익을 종업원에게 돌리는 성과급 이익배당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오늘날의 새한텐스텐을 일굴 수 있었던 힘도 이 제도에서 나왔다.

"성과급제도는 단지 종업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급 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돈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하죠. 경영이 투명해지고 종업원은 일한 만큼 벌어나기 회사에서 어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순경 회장이 성과급제도를 시행한 데에는 선진경영의 측면도 있었지만, 그의 불교관이 더 큰 작용을 했다. 사장부터 가장 낮은 직급의 종업원까지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부처님법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어느 회사와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 직원복지 여건을 갖춘 것도 불교경영의 방편이다.

김회장의 직원을 위한 경영은 이익을 고루 배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익금의 10%는 반드시 사회에 회향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한번도 빠짐없이 실천했다. 200여 직원들은 김회장의 이 같은 경영원칙을 적극적으로 따랐다. 새한텐스텐과 새한마이크로텍 직원들의 책상에 불교 서적이 유난히 많은 이유도 김회장의 '직원을 위한 경영'에 감명을 받은 탓이다. 직원들은 김회장의 법명을 딴 사보 <돈오>를 자발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김순경 새한텐스텐 회장의 직무실에는 성철 스님, 월운 스님 등으로부터 받은 휘호가 걸려있다.

이윤보다 일하는 사람 행복토록

성과급제도 통해 경영 투명화

직원들 회장 법명 딴 사보 발간

'된 사람' 위해 매주 교양강좌 실시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매주 화요일 전직원은 교양 강좌에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일 잘 하는 사람보다 '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된 사람'이 아니었다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된 사람'이 되라는 취지이지요."

글=박봉영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김순경 회장은

고려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김순경 회장은 1977년 첨단광원소재 산업체인 (주)새한텐스텐을 창업했고, 1999년 나노테크 기술업체 (주)새한마이크로텍을 설립했다. 불교와 인연이 깊어 수락산 내원암에서 법사로 활동했으며, 오랜 기간 내원암 신도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새한텐스텐·새한마이크로텍 회장으로 봉선사 신도회 총회장, 구리문화원 원장직도 맡고 있다.

분단의 경제학 (16)

지속가능한 텀스텐이

올 여름 몇몇 사찰들은 많은 손님들로 인해 분주한 날들을 보냈다. 고즈넉하고 조용한 경내가 스님들의 수행 생활에는 좀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절집이야말로 부처님이 바라시는 모습일 것이다.

텀스텐이 점점 많은 도시민들의 휴가 방법이 되어가면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절집을 찾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고, 스님들을 만나고, 그래서 불법을 만날 수 있는 큰 복을 얻는 기회가 아무래도 절집에 서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텀스텐이라는 형태를 통해 절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그것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마케팅을 하면 사업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로 소비자들의 현재 습성에 맞추어서 마케팅을 할 때 성공의 확률은 높아진다.

절집에 가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오래된 절에 가면 아파트 생활을 하는 현대의 도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잡자리, 욕실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편함을 강요받는다. 한번, 두번은 신선하게 느끼지만 그 이상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 버리기 쉽다. 또한 만나게 되는 불교의 내용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잠시 절집에 머무는 그들 대부분은 한 달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소비자 습성 외면한 마케팅은 실패율 높아 다가가지 않고는 관심·사랑 받을 수 없어 팔만사천 법문은 중생 눈높이 맞추라는 뜻

불교를 알기 위해서, 주변의 풍광이 아름다워서, 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휴식을 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찾는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매년 텀스텐이를 통해 절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 되는 것일까.

사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보고 있는 텀스텐이 붐은 서양에서 시작된 텀스텐이 열풍이 우리나라 도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켜 발생한 잠시 동안의 유행이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

비록 절집에서의 경험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당분간 사람들의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텀스텐이 바람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경영학의 마케팅 이론에는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려고 해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소비자들의 행동양식은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습성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지 않으며, 한 달에 한 시간도 삶의 심오함을 생각할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이곳으로 오라는 방식으로 얼마나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진실로 절을 찾는 중생들에게 부처님 법을 만나서 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중생의 키에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은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으며, 한문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한문 경전을 읽을 수도 없으며, 이 나라의 교육정책 덕에 철학도 제대로 공부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불교에 팔만사천의 수많은 법문이 있는 것은 눈높이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의도 때문이다. 찾아오라고 하지 않고, 중생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찾아가셨기 때문이다. 텀스텐이 한 때의 유행이 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를 기원한다.

눈높이 서비스가 절에서 이루어질 때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 상품문의: (02)732-1520

■향꽃이

'글라스 향꽃이'는 불에 타지 않는 유리재질의 글라스로 만들었고, '조가비 향꽃이'와 '나뭇잎 개구리 향꽃이'는 사기 제품입니다. 기존의 향꽃이에 비해 디자인이 뛰어나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립니다.

가격 : 글라스 향꽃이 12,000원, 조가비 향꽃이 12,000원, 나뭇잎개구리 향꽃이 12,000원

수월관음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함께 감탄을 한다. 원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정상과 대종대종, 한국불교대종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경이신 법체 金體佛 화백에서 3년간 기도와 영력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도 판화와 배틀린 화사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풀콜프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영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필라 불공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 란이 있다. 영림이 나타난다는 일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공 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헌정씩 주기도 하고, 재림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복금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원안불공을 파진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계하고, 정현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 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어해설

-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꽃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 (淸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세로 88cm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번영의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혀 비취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번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생세

평생 부자지갑
준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시령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흠福지갑
음악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노후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악의 조화로 만사가 행통되는 옥자대명왕인연을 넣고 지갑내부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끌어오게 하는 보령과 악귀와 집귀를 쫓고 계 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울 손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던 장사가 절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뜻밖에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흠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악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늘림과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장지갑 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물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악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풀림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귀국 기다림 산중에 계시실 때 가난으로 힘없고 고통속

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흠 옥자대명왕인연으로 항상 위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늘 쉽게 해결된다고 설하였다. 불경에 일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자하는 카필라불공사에서 절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흠 부자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만나

세로 88cm 가로 58cm

남성용장지갑 (검정)
여성용장지갑 (보라)
(복색, 보라색)